

아미타여래좌상

여래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달한 부처로서 불교 사원에서 주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미타여래의 온화한 표정과 승적을 나타내는 소박한 복장은 높은 정신 상태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미타여래는 보통 연꽃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로 표현되는데, 이는 활짝 핀 연꽃의 모습이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무한의 광명을 지닌 자(무량광)’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미타는 종종 ‘무량광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목상은 높이가 219cm로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거대한 조각상들처럼 하나의 통나무로 조각하지 않고 여러 나무 조각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당시의 새로운 조각 기술(요세기즈쿠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